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전 성도 성경통독 시작된다

-이중윤 목사 6월7일(금) 홍해작전 2일째 설교 중에 발표-

2002년 6월 7일 홍해작전 2일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해 중 이중윤 목사는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 필요를 재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성경 통독기념 찾잔 세트를 시상하기로 하고 향후 2년 뒤에 교역자들이 심방을 할 때에 이 찾잔이 없는 가정은 차 대접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전 성도의 성경통독 방법은 새로이 통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던 통독을 마치면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사무국이나 교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하면 시상을 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 되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2년 전반기 열린 교회 프로그램 종강

교회가 열린 교회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11학기 서울성경대학과 4학기 살롬 경로대학, 3학기 서울 주부대학이 10주간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6월 첫 주 모두 종강 하였다. 이번 열린 교회 프로그램도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193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수료자들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수료증을 수여 받게 된다. 각 프로그램별 수료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경대학 수료자 명단)

-사도행전-(26명)

고완순 권윤경 김미선 김남순 김영식 김옥순 김인실 김정숙 박순복 박현영 서한석 서희숙 오은숙 오충례 이경구 이미숙 이영자 이은자 임승자 임인선 전아미 정유선 조정옥 주희인 천장화 함은희

-창세기-(18명)

김옥순 김은미 박두영 박현주 서춘식 송혜숙 유영준 유을상 이계홍 이규의 이남복 이동만 이현숙 장영일 정병무 정연택 정정숙 최용걸

-출애굽기-(4명)

김옥순 왕원희 오승민 전용순

-누가복음-(13명)

김세재 김옥순 김은태 박현주 송혜숙 이경희 이관규 이은진 임상현 전배호 정병무 조정옥 최용걸

-음악교실-(7명)

구진경 권이순 김옥순 박조현 윤복순 최숙자 최용걸

-전도학교-(3명)

유영준 정연택 주희인

-교구일군 양성반(L.T.C)-(4명)

우경진 윤숙희 정유선 현기옥

(교사대학, 33명)

김광룡 김승배 김영란 김장애 김중근 김효순 박광식 박은주 서명조 서희숙 손명근 손병석 안성의 유관모 유복준 유영덕 이경선 이광렬 이동권 이명희 이사라 이영희 이인선 이종업 이학주 인대진 장벽희 정연택 정효자 제오복 천인숙 최길옥 최희숙

(살롬 경로대학, 22명)

김명숙 김병숙 김연정 김종자 김진영 김진오 노영숙 백춘자 서귀용 송영강 이덕빈 임광식 전인화 전춘자 정빈모 조동환 조옥심 차복녀 최경애 최영순 한금희 함승현

(서울 주부대학 12명)

남태순 박동희 박상희 이년화 이영신 이인선 이현순 임승자 제오복 조정옥 최근자 한재복

(평신도 신앙강좌)

-종말론-(31명)

강정옥 국산옥 김명숙 김복녀 김숙자 김은애 박이준 박종만 박춘자 방계은 송정심 송영강 왕경래 우지원 유근중 유영준 이경구 이병생 이석교 이순녀 이태상 장영일 장일분 전춘자 정옥희 정정숙 천인숙 최규조 최성숙 최형열 한정원

-한국교회사-(10명)

박성근 심재을 오길탁 오승민 오은미 이경선 이남성 이민화 정병무 최창화

홍해작전 은혜 중에 진행 중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주 교재로-



우리교회가 국가와 교회와 개인의 홍해를 건너기 위해 11년째 빠짐없이 진행해오고 있는 홍해작전이 6월6일 새벽 개전 되어 매일 새벽 수많은 성도들이 2층 분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오늘로 4일째 작전 중이며 특히 이번 홍해작전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유례없는 대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교재로 한 이중윤 목사의 강해 설교로 은혜를 받고 있다. 많은 성도가 귀한 시간을 바쳐서 함께 승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교회는 홍해작전 기간 중 기존의 70인 전도대의 활동을 재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0인 전도대와 함께 전도에 나설 선교회와 교구를 발표했다.

6/08(토)	오후 3시	70인 전도대, 빌립, 안드레 선교회
6/12(수)	오후 2시	70인 전도대, 1,2,3,7,8,9 교구
6/15(토)	오후 3시	70인 전도대, 베드로, 바울 선교회
6/19(수)	오후 2시	70인 전도대, 4,5,6,10,11,12 교구
6/21(금)	20:00~21:30	연합다락방(금요일야)
6/22(토)	오후 3시	70인 전도대,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선교회

서울강남노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일정

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서울강남노회 강습회 일정이 나왔다. 각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올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준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 † 주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요 10:10, 창 1:27~31)
- † 장소: 소망교회
- † 강습회 시간: 6월 24~25일 양일간 오후 6:30~10:20

6/24(월)

- 18:00~18:30: 등록 및 접수
- 18:30~19:30: 찬양과 율동(유아, 유치부), 찬양과 율동(아동부), 유아 유치부 환경 꾸미기, 그림자극
- 19:40~20:50: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21:00~22:20: 캠프 프로그램, 성서학습(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6/25(화)

- 18:00~19:30: 찬양과 율동(유아, 유치부), 찬양과 율동(아동부), 유아 유치부 전야제, 전도프로그램(환경꾸미기)
- 19:40~21:00: 예배프로그램, 영어 찬트프로그램, 성서학습(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 21:00~22:20: 교육관리 프로그램(부장 간담회), 유아부 특별활동, 유치부 특별활동, 유년부 후속활동, 초등부 후속활동, 소년부 후속활동

이사야서 강해

에돔의 심판

(이사야 63장 1 - 6절)



이종운 목사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비유적 진실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내다본 선지자는 에돔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대표하는 족속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에 의해 같은 시간에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형제들은 서로 반목을 합니다. 에서의 후예로 알려진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물고 찢는 역사는 에서와 야곱 이후로 계속 되었습니다. 에돔인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증오심에 불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1. 에돔은 왜 심판을 받는가

(1) 교만 때문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끄기를 누가 능히 너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욥 1:3).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죄명은 바로 교만이었고 인간의 원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선지자 오바다는 에돔이 교만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교만은 에돔인의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2) 변태적 증오심 때문에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것도 죄이거늘 하물며 동족을 향한 미움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쌍둥이 형제로서 그들은 남보다 더 친밀하고 우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겔 35:5).

에돔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원통하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한 많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자 형제가 다른 민족에 의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욥 1:12).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욥 1:13).

(3) 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겔 35:11).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이유는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에돔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에돔에는 좋은 목초지와 안전한 상업지가 있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시 137:7).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축복을 경히 여기고 남이 받은 복만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적게 여겼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혈어 버리라 혈어 버리라 그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이유는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초까지 혈어 버리라 하였나이다"(시 137:7).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초까지 혈어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4) 증오심을 가져온 잔인함과 폭력 때문에
"네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욥 1:14).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에돔은 네거리에서 서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원수에게 이들을 고발하여 죽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고 피난하는 자들을 쫓아가서까지 살해했습니다(욥 3:19). 증오심은 살인을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죽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2.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으로 오심으로 에돔은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사 62:11).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구원이 임합니다.

(1) 승리하며 돌아온 위대한 영웅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은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1절).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에돔에서 오십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싸워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웅은 군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훈장도 장식도 없는, 그러나 피로 얼룩진 옷을 입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2절). 그의 옷이 붉음은 피가 묻은 때문입니다. 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는 겁에 질리거나 지친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걸어오십니다. 당당하고 엄숙한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는 원수를 진멸하고 피 묻은 정복자의 옷을 입고서 오십니다. 선지자에게는 이 모습이 매우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2) 그는 포도즙 틀을 밟는 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2절). 포도를 짓밟아야 포도즙이 나오듯 그리스도는 에돔을 완전히 짓밟아 진멸하셨습니다. 적당히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3) 그는 심판을 홀로 행하신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3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5절). 하나님은 심판 날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므로 마지막날에 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4) 그의 최후 승리는 의로운 진노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함과 분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3절), 붙잡아 주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없이 홀로 심판하셨습니다(5절).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무엇으로도 평계할 수 없습니다.

(5) 구속의 완성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냐"(4절). 원수를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가 망하는 시간은 곧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6) 영원한 멸망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6절). 멸망당한 사람은 제 길을 못 갑니다. 분노로 인해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마침내는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선혈이 내 옷에 튀어'(3절), '만민을 밟았으며'(6절),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6절). 이런 표현들은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최후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바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선민은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올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로서 교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하므로 생기는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선교 보고서

양재준 목사(보병 제23사단 동해안 등대교회)



4학기 살롬 경로대학을 마치며

김진호 집사(11교구, 아브라함 남선교회장)

2000년 9월에 개강한 살롬 경로대학은 금년 6월에, 4학기를 마쳤다. 특히 이번 학기를 수료하며 살롬 경로대학 이수증을 받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요즘은 변화가 너무나 빨라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어제의 일은 아득히 먼 과거가 되고 마는 것 같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할 상실에 대한 소외감은 더욱 커져가 기간 한다. 이때에 급증하는 노인 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살롬 경로대학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할을 찾게 하는 매우 시의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이번 4학기 살롬 경로대학은 사회 각계의 강사들을 통한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교양과 사회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의 야외수업에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독교 100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이제 4학기 살롬 경로대학을 마치며 더욱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며 천국만을 바라 볼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종운 목사님과 선생님, 서울교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지금도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 군선교 위원회와 성도 여러분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사랑의 후원과 기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간단하게나마 군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아무 것도 없이 무작정 시작했던 교육관 공사가 서울교회의 성탄절 특별헌금 지원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축복의 집(Blessing House)'로 새롭게 태어나게 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와 다름없던 낡고 허름한 블록 건물을 외국의 멋진 별장을 연상시킬 만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내부도 도시의 카페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보는 이마다 군대에 이런 곳이 다 있나 하며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들이 삼삼오오 블레싱 하우스를 찾고 저녁이 되면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음악 및 영화상영을 통해 교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전도까지 되어 요즘 예배인원이 훨씬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답사문 -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 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수료하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몇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성경 중심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입니다.

갱신 연구원 이종운 원장 목사님의 성경 신학과 많은 기도와 정성을 기울인 성경 강해는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 젖어 들게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곳에는 언제나 생수가 터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둘째 시간의 신학세미나는 언제나 시대에 맞는 영적 감각, 문화상황에 맞는 공부를 해서 조화를 갖추는 아름다움과 영적인 양식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봉사, 헌신, 예절, 좋은 교회 시설과 질서 정연한 움직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고난에 가까운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이 대하는 식탁의 풍성한 대접은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4학기를 수료하는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 회원으로써 연구원의 발전과 성장에 질서와 기도를 모으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지체의 사명이며 영적인 은사일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부디 모든 면에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성 삼위 하나님의 중심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착한 충성과 슬기로운 지혜와 기쁨준비, 나눔 선교의 공동체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년 6월 3일 21학기 수료를 마치며,
수료생 대표 권이옥 목사 올림



교육관 내부는 온돌마루로 개조하여 새벽기도와 주일 학교 교육하기에 딱 인성맞춤이고 2층 사무실은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업무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비좁았던 부속도 2배 이상 커져서 여전도회원들의 봉사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물질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서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신병세례식에는 매 기수마다 70% 이상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서울교회의 후원으로 부족함 없이 많은 세례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으며 더 많은 세례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동해안 경계를 맡은 저희 부대와 교회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vision2020 운동이 현실화 되도록 오늘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서울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롬.

2002년 5월 23일

동해안 등대교회 담임목사 양재준 올림

† 단 신 †

주부대학 전시회

8층 만나홀 입구에 3학기 주부대학을 마치고 난 주부대학 수강생들의 특별활동 창작품을 전시중이다. 많은 성도들의 관람을 바란다.

오늘은 전 성도 사진촬영 마지막 날

오늘은 전 성도 사진촬영 마지막 날이 된다. 아직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중으로 사진 촬영을 마치기 바란다. 802호 비전 홀에서 1부 예배 후부터 2부 예배 후 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태신자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김명선, 김정현, 김명선, 장인선, 이기출, 남일호, 김주식, 유규형, 주상범, 김영환, 오복녀, 이용이, 박은심, 조영태, 정학수, 박선부, 김옥엽, 오경자, 임성학, 조석현, 안명애, 이명근, 채봉석, 유성계, 김영순, 손종순, 남성두, 김만기, 양학선, 김경호, 유염자, 백형교, 하중태, 신상식, 김정진, 서수민, 김지선, 김정덕, 김한성, 김형준 (다음주 계속)

수화찬양단 모집

자격: 수화 초급반 이상 수료자로 수화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분
연습시간: 주일 오후 2:30~ 3:30
모집기간: 2002년 6월 9일~6월 30일
신청 및 문의: 사무국

† 서울교회 상담실 †

- 상담시간: 오전 11:30~1:00 (403호)
 - 상담방법: 인터넷상담, 즉시 면담, 간사와의 전화예약 (019-376-3892),
- | | |
|----|--|
| 법률 | 이승준 - lawboram@hanmail.net 법률상식 및 소송절차 |
| 세무 | 왕경래 - wk139@hanmir.com 세무상식 및 세무처리절차 |
| 병무 | 이병생 - bslee@5425.com 병무에 관한 전반 |
| 의료 | 인인호 - Adavid@hosanna.net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피부과정형외과, 내과, 치과, 한의과 |
| 교육 | 이은옥 - Benjade@hanmail.net 교육 및 학교생활문제전반 |
| 가정 | 김은태 - eunkim111@hanmail.net 가정문제 전반 |
| 결혼 | 이영희 - yhlee52@empal.com 초혼 및 재혼 |

살롬 경로대학

주소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2002년 피택 집사 · 권사 여러분께

박두영 집사(1교구)

대치동 새예배당 시대에 피택집사로 부름 받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몇 자 적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직분을 갖고 어깨에 힘을 주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 반대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도리를, 종의 모습으로 남의 발을 씻어주며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몸 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큰 감격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도 상심하고 시합에 들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천국 가는 길을 100%보장하는 티켓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척도는 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 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이나 피택되지 못하신 분 모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랍니다.

우리교회에서 안수집사회를 스테반 회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며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충성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과 성도에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서울교회의 수준 높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 주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숨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연순 권사(10교구)

2002 피택 권사님들께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권사 취임한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투표를 하면서 저는 문득 5년전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권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흡족한 일보다는 권사로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강남 YMCA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감싸는 봉사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당시에는 집이 멀어 주일을 지내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집이 머니까...'라고 자기 위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것은 결국 핑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로부터 피택 권사님들에게 권면의 글을 청탁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행여 선배 권사의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피택 권사님 여러분, 이제 권사로 취임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지만 우선 한 달에 한 번 있는 권사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권사는 무엇보다 교회에 기도로 봉사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부디 선배 권사들과 연합하여 기도의 동역자가 되므로 조국과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10주년 감사예배



기도문

최미아 집사 (5교구, 故 한요한 母)

사랑과 공흥의 하나님!
이곳에 요한이의 분골을 묻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지나니,
주님의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이끌어 주시옵고
요한이의 영혼을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부 지체였던 아들 요한이의 하관예배를 드리던 날)

사랑부는 서울교회가 창립된 후 제일 먼저 개교된 교회 학교로 예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지난 10년간 많은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사랑부는 감사예배에 앞서 지난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지난 10년간의 사랑부 교육 현장과 장애우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그간 많은 교우들이 작품을 관람하였고 6월 1일 창립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중운 목사님은 이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라는 말씀을 주시며 상한 갈대와 같이 마땅히 버림받을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꼭 붙잡힌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의 사랑을 흠뻑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이 날에는 세 분의 10년 근속 교사의 포상이 있었다. 그동안 여러분의 교역자와 부장이 사랑부를 거쳐갔지만 10년을 하루같이 장애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이들 교사들에게 십자가 뱃지가 주어졌다.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선거로 인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장애우를 위한 서울교회 사랑부 행사에 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지금 수서에 건설 중인 강남구 장애우복지센터에서 서울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감사예배가 끝난 후 서울교회 초등부, 중등부, 예바다부, 청년부가 이날의 행사를 찬양으로 축하하고 외부에서도 소망교회의 핸드차임 합주대와 밀알선교단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편집부:허숙)

동정

■ 이중운 목사는 11일(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로건총장 일행의 교회 방문시 무병성도가 기증한 장학금을 전달한다. 14일(금) 서울강남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 모친 장대방 권사 가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양지마을 건영빌라 503-403 (031-912-4238)

■ 이전 개업: 김병호 집사 "함께 하는 동물병원" 2296-0651

◎ 금주의 식사제공: 김복녀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월드컵 성공과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
2. 흥해작전에 참여하여 승전 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